

#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Factor on Adolescents' Depression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 수 최 규 련\*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Suwon Univ.

Professor : Choi, Kyu-Reon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how general trends in the asp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parental communication), peer factor, academic performance factor, depress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o examine possible changes in such trends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family structure environment (parental marital status, family economic status, and parents' education level), and then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100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Paternal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divorced / separated parents, and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Maternal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male students, divorced/separated parents, and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divorced/separated parents,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and a less educated father. Peer relations was significantly lower in students of divorced / separated parents, and of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divorced / separated parents, and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2)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paternal communication had both a direct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peer relations on depression, while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had both a direct an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peer relations on depression. Both peer relations and maternal communication had a positive an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chool grade had both a direct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paternal communication on depression. Parental marital status(divorced or separated) had both a direct an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on depression. Family economic status had only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3)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and peer relations had only a positive direct effect on depression, while maternal communication had only a negative direct effect on depression. Paternal communication had only an indirect effect through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and peer relations on depression. Father's education level, school grade, school category, family economic status and parental marital status(divorced or separated)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academic performance problems on depression. In addition, family economic status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paternal / maternal communication on depression. 4)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dolescents' depression were discussed.

---

▲주요어(Key Words) : 가족환경(family environment), 학업요인(academic performance factor), 친구요인(peer factor), 청소년의 우울(adolescents' depression)

---

\* 주저자 · 교신저자 : 최규련 (E-mail : krchoi@suwon.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직업이나 진로선택, 자아정체감의 형성 등 발달과제 부담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자극에 의해 감정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 충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여 문제행동과 사회적 일탈행동을 하거나 우울과 강박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정옥분, 2002). 더욱이 이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학업과 진학, 인간관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압력과 부담감, 좌절감을 겪으면서 우울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15세 ~ 18세의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남정자 · 조맹제 · 최은지, 1998; 조성진 외, 2001; Hankin et al., 1998). 도시 청소년의 33%가 우울증상이 있고 이중 20%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여(<http://www.maumsarang.co.kr/teenager.htm>), 우울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부적응 중의 하나이고(김교현, 2004) 청소년이 정신과를 찾는 가장 많은 이유라고 한다(권석만, 2000; 유기영, 2000).

종전에 청소년기의 우울문제는 정상적인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일시적이며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은 아동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유사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숙자, 2003). 청소년의 우울 성향은 성인기의 우울장애와 연결될 수 있고 우울로 인해 청소년의 발달과제를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차적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학업문제, 약물남용, 결석, 가출, 부적응, 비행 등의 행동문제와 연관되고, 피로감, 무력증, 체중변화, 과다수면 등의 생리증상을 보여 신체적 ·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게 된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찾기 어렵고,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화 문제에 비해 내면화 문제인 우울은 가정이나 학교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과 학업중단 등의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오경자, 이해련, 임양화, 1991). 2008년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19.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실제로 4.8%가 자살을 시도해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2008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158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 가정빈곤, 가정불화, 낮은 학업성적,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자살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학생들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우울로 밝혀졌다(이은숙, 2002; 전영주, 2001; 조성연 · 김혜원 · 김민, 2010).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청소년 우울과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울의 성별차이에서 성인기 우울이 여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데 비해 청소년 우울에 관한 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들(고정자, 2005; 김미영 · 강윤주, 2001; 손병덕, 2005; 홍강의 · 신민섭, 1994)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부 연구(김정민 · 이정희, 2008; 박경애 · 김은영, 1999; 한유진 · 유안진, 1994; 한창환, 2001)에서는 우울의 성차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연령별 우울의 차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결과와(김정민 · 이정희, 2008), 차이가 없다는 결과(조성연 외, 2010)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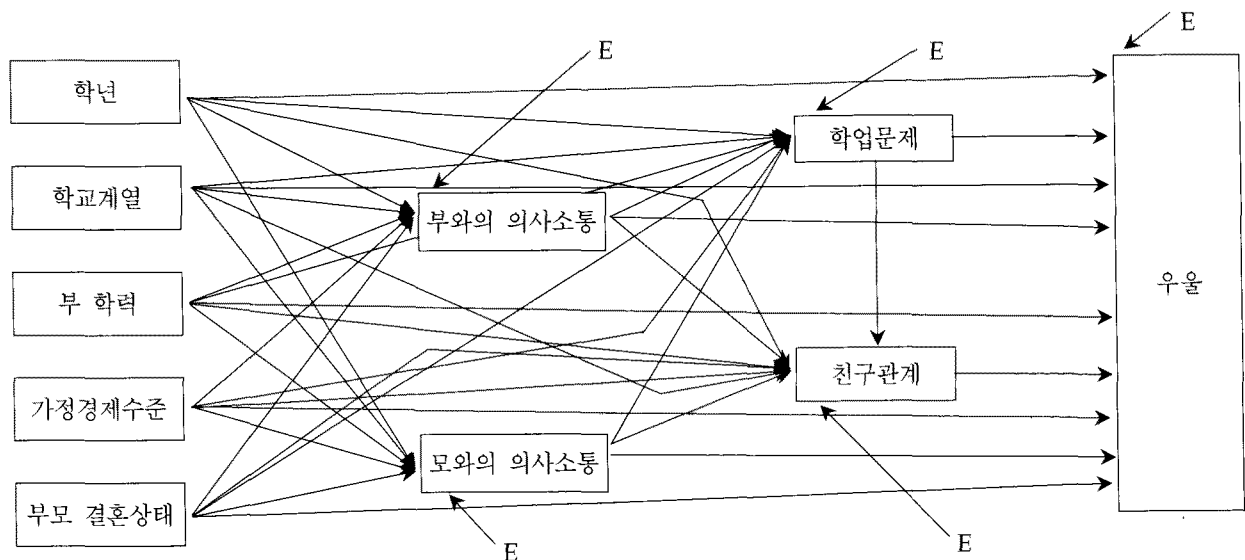
청소년 우울의 유발요인으로 많이 연구되는 것은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변인 특히 친구관계, 학업성적이다. 청소년에게 친구관계란 정체감과 소속감과 대인간의 친밀감 형성 등의 발달과제와 연관되어서 부적절한 친구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부적응과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 선행연구(김정민 · 이정희, 2008; 손병덕, 2005)에서는 친구들에게 배척받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고 우정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과중한 학업부담과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불만은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히 학업수행 정도는 학업면의 자아 개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의 준거로 작용하여 비행과 학교부적응 같은 외현적 문제와 우울 같은 내재적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ohde et al., 2004).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학업수행 정도가 낮은 집단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애 · 김은영, 1999; 손병덕, 2005; 조성진 외, 2001; 한인영 · 홍순례 · 김혜란 · 김기환, 1997). 또한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업문제를 겪을수록 친구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여 학업문제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나(김정민 · 이정희, 2008) 연구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친구관계가 학업문제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보고가(김정민 · 이정희, 2008) 있으나 역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두 변인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분노나 우울 같은 내재화된 문제는 사회적 요인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여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된다는 주장과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이 지지환경으로서 가족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부족과 그로 인한 친밀감 부족이나 갈등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시기이지만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이사라·박성연, 2001),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지지자원의 결핍으로 학업이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한다(Collins et al., 2000). 연구자들은 우울이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친구, 학업요인 외에 1차적 환경인 가정환경이 이들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청소년의 우울은 타고난 성별, 연령별 차이와 친구요인, 학업요인 외에 가족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여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이며. 가족환경에는 부모의 결혼상태와 경제수준 같은 구조적 환경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 같은 심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에서 한 부모가족, 낮은 가정경제수준이 청소년의 높은 우울증상과 관련된다는 보고와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 자살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보고들이 있다(손인영, 2007; 안순옥·김영희, 2005; 조성연 외, 2010; Aydin & Oztuncu, 2001; Robert & Simins, 1989).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청소년자녀에게 긴장을 주는 사건이고 정서

적 적응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정현숙, 1993) 부모가 사별한 경우와는 가족의 심리 정서적 체계가 상이하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 부모가족이 된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가족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제공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구조적·심리적 환경 변인, 친구변인, 학업변인들은 청소년의 우울을 각각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울에 대한 영향력의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미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학업문제 변인, 친구관계 변인 등이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남녀 청소년 집단별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우울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과 청소년의 학업문제, 친구관계 및 우울정도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 및 가족의 구조적 환경(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별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년, 학교계열)과 가족환경(구조적 환경: 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심리적 환경: 부모와의 의사소



<그림 1> 남녀 별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제 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통 정도),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년, 학교계열)과 가족환경(구조적 환경; 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심리적 환경;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 변인들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이론

우울은 절망감 또는 우울한 기분 슬픔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흥미 및 즐거움이 감소한 정서 상태를 가리킨다(APA, 2000). 우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증상으로 지속적인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의 상실이 나타나고, 인지적 증상으로 자기비난과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과 주의력 저하가 나타나고, 생리적 증상으로 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손상 등이 동반된다.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과는 달리 우울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고 방치될 우려가 많으며, 반항행동, 무단결석, 가출, 신체증상 호소, 섭식장애, 학업성적 저하 등으로 위장되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학습장애, 약물남용, 비행, 충동적인 자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결핍, 공격행동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정연경, 2009). 또한 정상적인 청소년도 우울감정을 보편적으로 느끼며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이 되어 부모와 불화를 보이기 때문에 우울증상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치료도 늦어지기 쉽다고 한다.

우울에 관한 이론으로 생화학적 이론, 정신분석이론, 강화이론, 인지이론 등이 있는데 생화학적 이론에서는 우울이 유전적이며 뇌의 신경전달부위에서 카테콜라민의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영유아기 성격 발달이 구강기에 고착될 때 발생한다고 한다. 강화이론에서는 강화빈도나 강화가 부적절할 때 발생한다고 하며, 인지이론에서는 자기 자신, 현재 상황, 미래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환경을 패배, 박탈 상황으로 지각하여 왜곡되고, 비현실적 사고를 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우울 빈도는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청소년기에 인지가 발달하면서 자의식과 자기비판의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작용하고, 동시에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 성숙해지는 결과 우울한 느낌과 부정적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 유발요인을 탐색하여 왔다.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자아정체감 확립, 학업성취,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 환경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가족과의 유대감 약화와 지지체계의 부족 등의 특징이 청소년기의 우울 빈도를 높게 한다는 것이다(Merton, Lewinsohn & Hops, 1990).

### 2.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환경 요인과 우울

##### (1) 가족의 구조적 환경과 우울

가족유형, 가정경제수준, 부의 학력 등을 중심으로 우울과의 연관성을 보면 한 부모가족 청소년자녀의 경우에 일반가족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원, 2006; 오승환, 2006). 그러나 한부모 가족이 된 사유로 이혼과 사별은 한쪽 부모를 상실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녀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이다. 한쪽 부모를 사별한 자녀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만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은 부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부모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는 이혼가정자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가정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은 성장기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안, 위축, 우울,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김숙자, 2003; 주소희, 2002; Wallersrein & Kelly, 1980), 더욱이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도 부모의 결혼생활 고통과 정서적 혼란이 부모가 이혼한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혼가족과 부모가 별거한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가 매우 적다(이소희, 2005).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가족의 청소년에게서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우울성향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김숙자, 2003; Wallersrein & Kelly, 1980)가 있는 반면 전문계 여고생들에게는 유의하지 않지만 높은 경향이라는 보고(이소희,

2005)가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이혼 후 2년이라는 경과 시간이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충격이 완화되고 비적응적 행동이 감소되는 주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나(주소희, 2002),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우울성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자녀에게 주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자, 2003). 또한 이혼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이나 어머니와 동거하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우울성향이 높고, 어머니와 동거하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정서불안이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김숙자, 2003), 이는 이혼한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어머니와의 동거가 가부장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불편함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겪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이혼가족의 청소년의 연령, 형제수, 출생순위, 종교, 아버지와 동거여부에 따른 우울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우울성향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김영란, 2004; 박경애·김은영, 1999; 손병덕, 2005; 이소희, 2005; 정용철, 2001; 조성진 외, 2001). 한편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청소년의 우울이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서혜인, 2004)도 보고되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혼가족의 청소년들이 일반가족의 청소년보다 가정경제수준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다(김숙자, 2003). 그리고 이혼가족 중 경제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우울성향이 높았고,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났다(김숙자, 2003).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김광일 외, 1983; 정용철, 2001), 이는 학력이 낮은 아버지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면에서 낮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나 가정경제수준 등 다른 변인의 영향력과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더 연구가 필요하다.

## (2)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우울

가족의 심리적 환경으로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통제력과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가족변인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부모와의 결속감과 유대감이 적을수록, 가족생활 만족이 적을수록 청소년자녀의 우울이 증가하며(최선남·최외선, 1995; 최외선·백양희·이미옥, 1997; Martin & Waite, 1994; Raja, McGee & Stanton, 1992),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우울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오남·김경신, 1994; 이은아, 2000; Capaldi, 1991). 특히 부모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갈등관계일 때 남녀 청소년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백양희·최외선, 1997; 임점숙, 2000; 임향숙, 2003; 최규련, 1998; 1999). 한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어(이근욱, 2004)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이 적고 과보호적일 때(김동식, 2003), 거부적, 적대적, 통제적 태도인 경우(김영란, 2004; 손병덕, 2005; 양유진, 2008; 정용철, 2001), 가정분위기가 불화하거나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김영란, 2004; 손인영, 2007; 이은아, 2000; 정용철, 2001; 황기섭, 2000), 부모의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손병덕, 2005) 청소년의 우울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원모·김미선·천성문, 2008; 여종일·정문자, 2009),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았다(김정란, 2004; 노상렬, 2001; 박수잔, 1997). 한편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매개로 간접효과만 있다는 보고(박원모 등, 2008)와 부부갈등의 직접효과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의한 매개효과 모두 아동의 우울에 유의하였다는 결과(이민식, 1999)도 있다. 한편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았다(고선주 외, 2004; 김수진, 2001).

## 2) 청소년의 학업요인과 우울

청소년의 학업수행 정도는 학업영역에서의 자아개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기가치감의 준거로 사용되고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행과 같은 외현적 문제와 우울과 같은 내재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민·이정희, 2008). 실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김선아 외, 1998; 김영란, 2004; 박경애·김은영, 1999; 서혜인, 2004; 손병덕, 2005; 정용철, 2001; 조성진 외, 2001). 학업과 학교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와 교사 및 학교생활에 불만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백양희·최외선, 1997; 심희옥, 1998; 최규련, 1999; 최외선 외, 1997; Capaldi, 1991). 또한 학업성적과 학업스트레스는 성별, 학교계열, 부모의 결혼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오승환, 2006).

### 3) 청소년의 친구요인과 우울

청소년은 학업성적에 따른 자신의 지적 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인기가 있는가 아니면 관계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가의 경험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능력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또래와 긍정적 경험을 함으로써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하고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정옥분, 2002). 또래관계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김영란, 2004; 백양희·최외선, 1997; 손병덕, 2005; 신재은, 1999; 옥정, 1998;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6; 이경주·신효식, 1997; Beam et al., 2002; Field et al., 2001)에서는 친구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친구수가 적을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적게 받거나 지지와 인기가 적을수록, 또래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친구관계에서 좌절감을 경험할 때 우울이 증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또래에 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과(Armsden, 1991; Raja et al., 1992)가 있고, 또래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정도를 더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보고도(Barrera & Garrison-Jones, 1992)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친구관계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가족의 청소년의 경우 더 문제를 보였다(홍순혜, 2004).

이상의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제한된 재정적 자원과 양육모의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거주지의 변화에 따른 친구와의 접촉상실과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 역할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우울을 유발하며(주소희, 2002), 이혼가정 자녀 중 가족이나 친지의 지속적인 지지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주소희·이경은, 2005).

###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우울

성별, 연령, 학교계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우울증상의 차이를 보면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김미영·강윤주, 2001; 김영란, 2004; 김혜원, 2006; 신재은, 1998; 어유경, 2005; 유기영, 2000; 유안진 외, 2006; 임향숙, 2003; 조민영, 2005; 조성진 외, 2001; 홍강의·신민섭, 1994), 그 원인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변화와 과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불만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본다(양돈규, 1997). 그러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보고(정연경, 2009)와 차이가 없다는 보고(김정민·이정희, 2008; 배정숙, 2006; 서혜인, 2004; 손인영, 2007; 조성연 외, 2010; 한유진·유안진, 1994; 한창환, 2001)도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우울의 성차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여자 청소년은 관계중심적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남자 청소년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보고되고(Susan Nolen-Hocksma, 1994; 정연경, 2009 재인용),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과 대인관계문제로 인하여 우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연경, 2009).

연령에 따른 우울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 수치가 높다는 결과(김미영·강윤주, 2001; 김정민·이정희, 2008; 박경애·김은영, 1999; 양유진, 2008; 유안진 외, 2006)가 있고 이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심리적 고민과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연령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곽금주·문은영, 1993; 신재은, 1999; 정용철, 2001; 조성연 외, 2010; 홍강의·신민섭, 1994)도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학교계열에 따른 우울성향에 대해서는 전문계가 인문계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강현숙, 1989; 조성연 외, 2010).

이상의 여러 요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변인, 학업변인, 친구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우울의 성별 차이, 부모의 결혼상태 별 분석이 연구되지 않았다. 유사한 연구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정생활만족, 친구관계, 청소년의 아버지의 우울정도 등이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기능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의 결혼만족 등은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최규련, 1999).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H시, S시, A시, N시에 소재한 중학교 6개교, 인문계고 4개교, 전문계고 4개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학년에서 고등학생 2학년까지 1,0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9명\*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성별	남자 청소년	462 (45.8)	부학력	초졸	40 ( 4.0)	
	여자 청소년	547 (54.2)		중졸	72 ( 7.3)	
계열	중학교	407 (40.3)		고졸	445 (45.4)	
	인문계 고등학교	341 (33.8)		대졸	320 (32.7)	
	전문계 고등학교	261 (25.9)		대학원졸	103 (10.5)	
학년	중학1학년	154 (15.3)		모학력	초졸	41 ( 4.2)
	중학2학년	127 (12.6)			중졸	93 ( 9.5)
	중학3학년	126 (12.5)			고졸	558 (57.2)
	고등학교1학년	325 (32.2)			대졸	231 (23.7)
	고등학교 2학년	277 (27.5)			대학원졸	52 ( 5.3)
경제수준	아주 못산다	20 ( 2.0)	부모 결혼상태	결혼	865 (85.7)	
	못사는 편	163 (16.2)		별거	33 ( 3.3)	
	보통	684 (67.8)		이혼	111 (11.0)	
	잘사는 편	126 (12.5)				
	아주 잘산다	16 ( 1.6)				

\*결측치로 사례합계가 동일하지 않음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우울척도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의 우울성 검사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김영란(2004)이 번안하고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21번째 문항을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수정한 것으로 지난 2주 동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적 증상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많이 있었다'의 4점 척도로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에서 63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0 ~ 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음 10 ~ 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 ~ 23점은 중간정도의 우울상태, 24 ~ 63점은 심한 우울상태를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2) 가족구조 척도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 사별, 별거, 이혼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고 분석 시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상태, 별거, 이혼상태만 표본에 포함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아주 못 산다에서 못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3)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 20문항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척도 20문항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부-자녀간 의사소통척도가 Cronbach's Alpha 값이 .90이고 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신뢰도계수는 .93이었다.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분석 시 역기능적 정도를 역코딩하여 기능적 정도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되어있다.

4) 청소년의 학업문제 척도

공부 열심정도, 자신의 공부 잘하는 정도, 자신의 성적 만족도, 최근의 자신의 성적 평균점수, 공부 스트레스 정도의 5개 문항을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학업문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분석 시 5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많으며, 성적만족도가 낮고, 공부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5) 청소년의 친구관계 척도

선행연구(김영란, 2004;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6)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한 친구 수, 친구에게 인기도, 친구에게 이해받는 정도, 친구에게 따돌림 당한 경험, 친구관계 만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친구 수 문항은 '없다. 1-2명, 3-4명, 5-6명, 6명이상'으로, 친구에게 인기도, 이해받는 정도, 따돌림당한 경험 문항은 각각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아주

많다'로 되었고, 친구관계만족 문항은 '아주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아주 만족'으로 되어 있다. 자료 분석 시 친구에게 따돌림 당한 경험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5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6)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척도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의 범위로 되어있고, 분석 시 중학교 1학년은 1점, 2학년은 2점, 3학년은 3점, 고등학교 1학년은 4점, 2학년은 5점으로 코딩하여 연령 변인화하여 분석하였다. 학교계열은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학교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절차

1) 예비조사

측정도구 문항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1개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개교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3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분석 가능한 연구대상은 122명이었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9년 4월 13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학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8개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개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 기재 방식 등을 설명한 후 교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는 배부된 총 1,300부의 질문지중 1,286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8.9 %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 된 자료를 제외하고,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 중 사별한 케이스를 제외한 1,009부(77.6%)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ANOVA),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Pe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정도 평균값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정도 평균값보다 더 적었다. 청소년의 학업문제 평균값은 3.40으로 중간 정도 경험하며, 친구관계 평균값은 2.91로 친구관계의 긍정적 친밀도가 중간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정도는 평균 12.29점(표준편차 8.29)으로 가벼운 우울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정용철(평균 14.89점)이나 여자고등학생을 연구한 김동식(2003),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2006)의 우울 평균점수(16.03점, 13.23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평균 우울수준이 가벼운 상태인 결과는 조사 대상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된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의 우울상태를 세분하여 보면 비우울상태 430명(42.6%), 가벼운 우울상태 296명(33.2%), 중등 정도의 우울상태 191명( 15.1%), 심한 우울상태 92명( 9.1%)로 나타났다. 이중 가벼운 우울부터 심한 우울상태까지의 비율이 57.3%인 결과는 정용철(2001)과 조성진 외(2001)의 결과(27%, 38.4%)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김혜원(2006)의 결과(64.66%)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우울의 관련변인 간의 관계

<표 2>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64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61
학업문제	3.40	.85
친구관계	2.91	.60
우울	12.29	8.29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의 차이

변인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자청소년	3.082 (.627)	3.403 (.553)	3.473 (.861)	2.998 (.635)	12.01 (8.437)
	여자청소년	3.127 (.658)	3.552 (.640)	3.339 (.833)	2.929 (.575)	12.52 (8.155)
t, F value		-1.092	-3.863***	2.506*	.789	-.957
학교 계열	인문계고교	3.085 (.640)a	3.515 (.614)	3.500 (.815)b	2.936 (.575)	12.18 (8.005)a
	전문계고교	2.971 (.632)a	3.410 (.577)	3.566 (.793)b	2.856 (.629)	13.48 (9.010)b
	중학교	3.210 (.639)b	3.503 (.614)	3.209 (.875)a	2.914 (.603)	11.61 (7.963)a
t, F value		10.987***	2.439	18.150***	1.631	4.108*
부모결혼 상태	결혼	3.126 (.653)	3.502 (.611)	3.348 (.850)	2.933 (.590)	11.94 (8.293)
	이혼·별거	2.984 (.572)	3.364 (.564)	3.717 (.770)	2.798 (.667)	14.33 (7.963)
t, F value		2.640**	2.554*	-5.226***	2.311*	-3.313***

주. 동일기호: 동일하위집단에 속함

청소년 우울의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명목변수인 성별, 학교계열,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학교계열(p<.001), 부모의 결혼상태(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성별(p<.001), 부모의 결혼상태(p<.05)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전문계 고교, 이혼·별거가족,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적었다. 이는 선행연구(고선주 외, 2004; 김수진,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업문제는 성별(p<.05), 학교계열(p<.001), 부모의 결혼상태(p<.001)에 따라, 친구관계는 부모의 결혼상태(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자 청소년, 전문계 고교, 이혼·별거가족의 경우에 학업문제가 많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오승환, 2006; 홍순혜, 2004)와 일치되는 것이다. 우울은 학교계열(p<.05), 부모의 결혼상태(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생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고, 이혼·별거가족의 경우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 수치가 높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미영·강윤주, 2001; 김정민·이정희, 2008 등)과 일치하며, 전문계고

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우울정도가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강현숙, 1989; 조성연 외, 2010)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우울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경향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김정민·이정희, 2008; 배정숙, 2006; 서혜인, 2004; 손인영, 2007; 한유진·유안진, 1994; 한창환, 2001)와 일치된 것이나 여자 청소년이 유의하게 우울정도가 높은 선행연구결과(김미영·강윤주, 2001; 김영란, 2004; 김혜원, 2006; 신재은, 1998 등)와는 상치된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에 우울정도가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김숙자, 2003; Wallersrein & Kelly, 1980)와 일치된다.

청소년의 학년, 학교계열, 가정경제수준, 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 정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남자 청소년집단과 여자 청소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따로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남자 청소년집단에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는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업문제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자 청소년집단에서는 학교계열, 가정경제수준, 부모결혼상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 등이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년, 학업문제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청소년 우울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남 \ 여	1	2	3	4	5	6	7	8
1.학년		.101*	-.160***	-.096	-.019	.150***	-.056	.107*
2.가정경제 수준	.191**		-.274***	-.169***	-.164***	.208***	-.186***	-.229***
3.부의 학력	-.154***	-.221***		.103*	.081	-.145***	-.036	-.053
4.부와의 의사소통	-.169***	-.172***	.092		.452***	-.245***	-.291***	-.309***
5.모와의 의사소통	-.015	.019	.028	.291***		-.182***	-.171***	-.347***
6.학업문제	.160***	-.233***	-.131**	-.143**	-.083		-.129**	.305***
7.친구관계	-.088	-.138**	-.032	-.158***	-.093	-.193**		-.385***
8.우울	-.005	-.089	-.013	-.335***	-.206***	.300***	-.327***	

\* p<.05 \*\* p<.01 \*\*\* p<.001

<표 5> 남자 청소년의 우울의 인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변인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
	$\beta$	$\beta$	$\beta$	$\beta$	$\beta$
학년	-.113*	-.025	.069	.015	-.127**
학교계열	-.071	.010	.093	.027	-.005
부 학력	.012	.022	-.029	.052	-.022
부모결혼상태	-.055	.022	-.090*	-.029	-.090*
가정경제수준	.143**	-.024	.153**	.046	-.039
부와의사소통			-.060	-.105*	-.275***
모와의사소통			-.064	-.053	-.114*
학업문제				.168***	.235***
친구관계					.199***
상수	2.892	3.446	3.615***	1.968	17.132
Adj R <sup>2</sup>	.048	.011	.080	.047	.256
F 값	4.861***	.156	6.152	3.539***	15.112***
D-W계수	2.104	1.921	1.855	1.946	1.893

\* p<.05 \*\* p<.01 \*\*\* p<.001

2. 청소년 우울의 인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관련변인의 청소년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학교계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성별변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우울정도가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를 나타내고 또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고하며, 성별 분석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우울의 유발요인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집단과 여자 청소년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인 중 명명척도에 해당되는 학교계열과 부모의 결혼상태변인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학교계열에서 인문계열이나 중학생은 1, 전문계는 0으로 적용하였고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서 결혼유지는 1, 별거나 이혼은 0으로 적용하였다.

회귀가정위반 여부를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간 상관이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각 변인의 VIF(분산확대인자) 값이 1.03~1.49 범위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urbin-Watson계수 산출결과 1.88~2.27범위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 항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적 인과모형에 따라 성별로 1단계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년, 학교계열)과 가족구조(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와의 의사소

통, 모와의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에 추가하여 학업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3단계로 학업문제를 독립변인에 추가하고 친구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단계로 친구관계를 독립변인에 추가하고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경제수준( $\beta=.143$ ,  $p<.01$ ), 학년( $\beta=-.113$ ,  $p<.05$ )이고 설명력은 4.8%인 반면 모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경제수준( $\beta=.153$ ,  $p<.01$ ), 부모의 결혼상태( $\beta=-.090$ ,  $p<.05$ )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3단계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문제 ( $\beta=.168$ ,  $p<.001$ ), 부와의 의사소통( $\beta=-.105$ ,  $p<.05$ )이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4단계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와의 의사소통( $\beta=-.275$ ,  $p<.001$ ), 학업문제( $\beta=.235$ ,  $p<.001$ ), 친구관계( $\beta=.199$ ,  $p<.001$ ), 학년( $\beta=-.127$ ,  $p<.01$ ), 모와의 의사소통( $\beta=-.114$ ,  $p<.05$ ), 부모의 결혼상태( $\beta=-.090$ ,  $p<.05$ )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들은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을 잘하고,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하는 경우에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업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가 많을수록 친구관계가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여자 청소년의 우울의 인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변인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우울
	$\beta$	$\beta$	$\beta$	$\beta$	$\beta$
학년	-.079	.012	.165***	-.088	.054
학교계열	-.026	-.082	-.155**	.020	.048
부 학력	.046	.014	-.100*	.001	.063
부모결혼상태	-.005	-.006	-.101*	.017	.022
가정경제수준	.145**	-.125**	.130**	.107*	-.059
부와의사소통			-.186***	-.249***	-.076
모와의사소통			-.067	-.029	-.230***
학업문제				.046	.195***
친구관계					.334***
상수	2.649	3.134	4.092	2.486	8.370
Adj R <sup>2</sup>	.030	.017	.123	.087	.320
F 값	3.838**	2.606*	10.895***	6.856***	24.089***
D-W계수	1.910	1.738	1.997	2.074	2.27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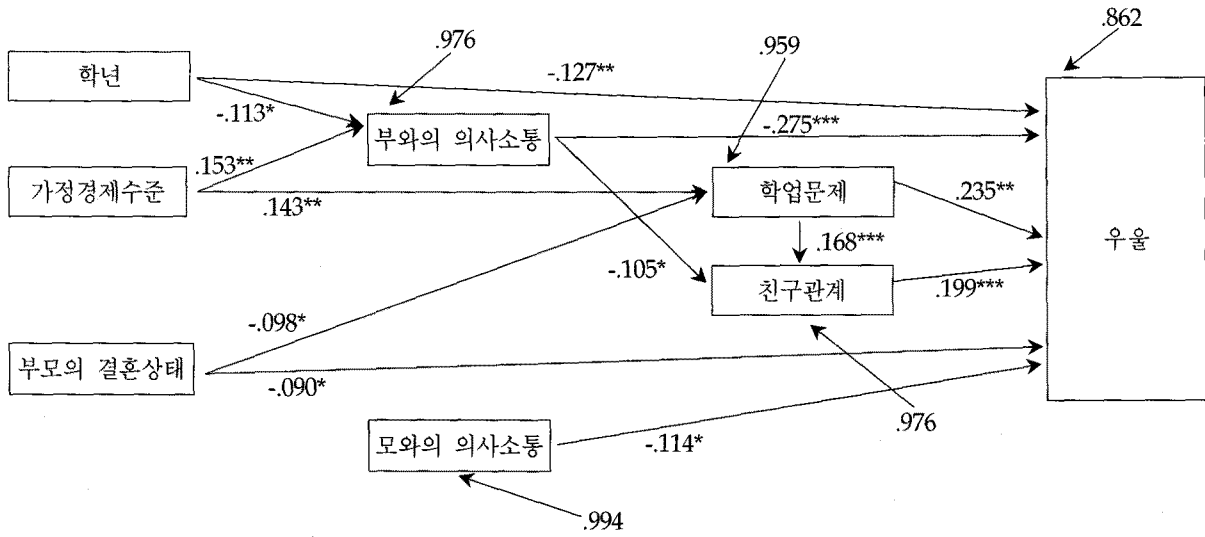
<표 6>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집단의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경제수준( $\beta=.145$ ,  $p<.01$ )이고 설명력은 3.0%이며, 모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가정경제수준( $\beta=-.125$ ,  $p<.01$ )이고,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2단계로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와의 의사소통( $\beta=-.186$ ,  $p<.001$ ), 학년( $\beta=.165$ ,  $p<.001$ ), 학교계열( $\beta=-.155$ ,  $p<.01$ ), 가정경제수준( $\beta=.130$ ,  $p<.01$ ), 부모의 결혼상태( $\beta=-.101$ ,  $p<.05$ ), 부의 학력( $\beta=-.100$ ,  $p<.05$ ),이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3단계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와의 의사소통( $\beta=-.249$ ,  $p<.01$ )이고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4단계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관계( $\beta=.334$ ,  $p<.001$ ), 모와의 의사소통( $\beta=-.230$ ,  $p<.001$ ), 학업문제( $\beta=.195$ ,  $p<.001$ )이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나 모와의 의사소통을 잘못한다. 그리고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계열이 전문계인 경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하는 경우,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는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으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표준화 회귀계수가  $p<.05$  이상 유의한 변인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고 가설적 인과모형을 토대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면 남자 청소년집단에서 학년은 직접적인 영향( $\beta=-.127$ ) 이외에 부와의 의사소통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13$ ;  $\beta=-.275$ )와 부와의 의사소통 →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13$ ,  $\beta=-.105$ ;  $\beta=.199$ )가 유의미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학업문제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43$ ,  $\beta=.235$ )와, 학업문제 →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43$ ,  $\beta=.168$ ,  $\beta=.199$ ), 그리고 부와의 의사소통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53$ ,  $\beta=-.275$ ), 부와의 의사소통 →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53$ ,  $\beta=-.105$ ,  $\beta=.199$ )가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직접적인 영향( $\beta=-.090$ ) 이외에 학업문제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098$ ,  $\beta=.235$ )와 학업문제 →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098$ ,  $\beta=.168$ ,  $\beta=.199$ )가 유의미하였다. 부와의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영향( $\beta=-.275$ ) 이외에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05$ ,  $\beta=.199$ )가 유의미하였다. 모와의 의사소통은 다른 변인과 연관 없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만 있었고( $\beta=-.114$ ), 학교계열과 부의 학력은 우울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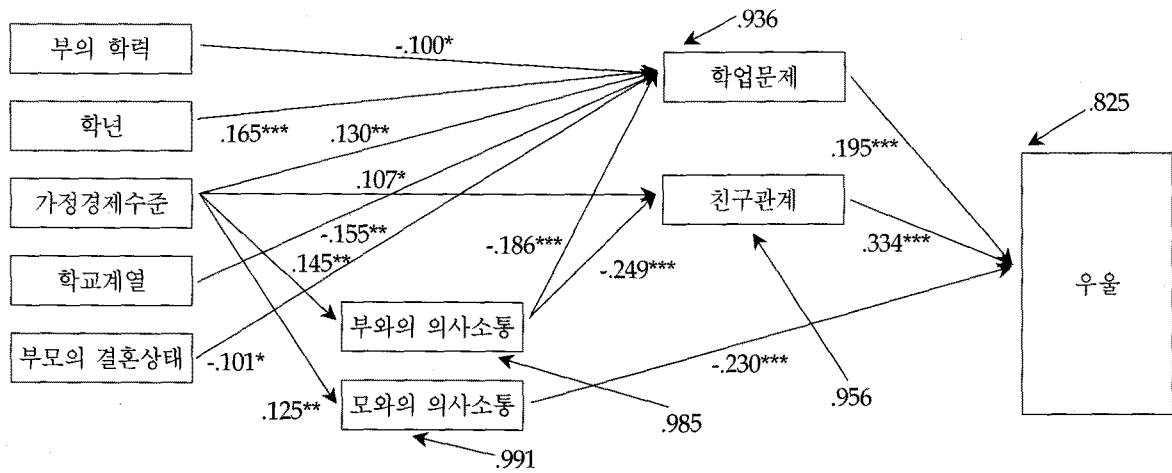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면 여자 청소년집단에서 부의 학력, 학년, 학교계열, 부모의 결혼상태의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고, 각각의 변인이 학업문제로 가는 경로( $\beta=-.100$ ,  $\beta$

### 3.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결과

- 1)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그림 2>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그림 3>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 7>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변 인	남자청소년			여자 청소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학년	-.127	.033	-.094	-	.032	.032
학교계열	-	-	-	-	-.030	-.030
부 학력	-	-	-	-	-.020	-.020
부모결혼상태	-.090	-.020	-.110	-	-.020	-.020
가정경제수준	-	-.001	-.001	-	-.010	-.010
부와의사소통	-.275	-.021	-.296	-	-.119	-.119
모와의사소통	-.114	-	-.114	-.230	-	-.230
학업문제	.235	.033	.268	.195	-	.195
친구관계	.199	-	.199	.334	-	.334

1위 2위 3위

=.165,  $\beta$ -.155,  $\beta$ -.101)와 학업문제에서 우울( $\beta$ -.195)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고, 학업문제를 거쳐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130,  $\beta$ -.195)와 부와의 의사소통 → 학업문제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145,  $\beta$ -.186,  $\beta$ -.195), 부와의 의사소통 →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145,  $\beta$ -.249,  $\beta$ -.334), 친구관계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107,  $\beta$ -.334), 그리고 모와의 의사소통 →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125,  $\beta$ -.230)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문제, 친구관계, 모와의 의사소통이었다.

## 2)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위의 인과모형에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따른 인과적 효과를 구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남자 청소년 집단의 우울에 대한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이 부와의 의사소통 (-.296)이었다. 그 다음이 학업문제(.268), 다음 친구관계(.199), 모와의 의사소통 (-.114), 부모의 결혼상태(-.110), 학년(-.094)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수준(-.001)은 간접적인 효과만 있었다. 여자 청소년 집단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에서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친구관계(.334)이었다. 그 다음으로 모와의 의사소통(-.230), 학업문제(.195)의 순으로 총 인과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부와의 의사소통(-.119), 학년(.032), 학교계열(-.030), 부 학력(-.020), 부모 결혼상태(-.020), 가정경제수준(-.010)은 간접적인 효과만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과 가족환경(구조적 환경: 부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심리적 환경: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우울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과 인과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연관시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제 변인의 경로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문제, 친구관계, 모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이중 영향력에서 성차를 보여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문제, 친구관계, 모와의 의사소통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데 비해 여자 청소년은 친구관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 중 학업문제, 친구관계가 우울에 공통적으로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은 선

행연구(김선아 외, 1998; 김영란, 2004; 박경애 · 김은영, 1999; 백양희 · 최외선, 1997; 손병덕, 2005; 신재은, 1999; 유안진 외, 2006 등; 정용철,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이근욱(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체로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많은 접촉시간을 가지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에 공통적인 것은 가정경제수준이 학업문제, 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 부와의 의사소통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결혼상태 등의 가족의 구조적 환경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의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남녀 청소년의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가정경제수준과 이혼·별거가족 등 취약요인이 있는 청소년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을 비롯한 부모교육, 부모의 결혼생활 향상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자존감증진훈련 프로그램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부와의 의사소통이 여자 청소년집단과 달리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남자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예방에 동성인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 우울에 대한 영향력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결혼상태, 학년이 직접적 효과를 가지는데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 효과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이혼과 별거, 고등학교 고학년 등이 남자 청소년집단의 우울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직접적 선행연구가 없어 후속연구를 요한다.

또한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정경제수준이 모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문제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학교계열이 전문계 고교인 경우에 학업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이 변인의 간접적 효과에서 보여주는

성차는 직접적 선행연구가 없어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문계 고교 여학생의 경우 학업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전문계 고교가 갖는 특수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더 구체적인 것은 후속연구를 요한다.

셋째, 우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보면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선행연구(김미영·강윤주, 2001; 김영란, 2004; 김혜원, 2006; 신재은, 1998; 어유경, 2005; 유기영, 2000; 유안진 외, 2006; 임향숙, 2003; 조민영, 2005; 조성진 외, 2001; 홍강의·신민섭, 1994)와는 상치되는 결과를 보였고, 차이가 없다는 보고(김선경, 1998; 김정민·이정희, 2008; 배정숙, 2006; 서혜인, 2004; 손인영, 2007; 한유진·유안진, 1994; 한창환, 2001)와는 일치되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 변인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는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김미영·강윤주, 2001; 김정민·이정희, 2008; 박경애·김은영, 1999; 양유진, 2008; 유안진 외,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심리적 고민과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계열 변인의 경우에 여자 청소년집단에만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문계 고교 여학생집단에서 인문계 고교 여학생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강현숙, 198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도 역시 전문계 고교 여학생이 갖는 특수성 때문으로 추정되나 더 구체적인 것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우울에 대한 가족의 구조적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부모의 결혼상태가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데 비해,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결과(김숙자, 2003; Wallersrein & Kelly, 1980)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경제수준 변인의 영향력은 남자 여자 청소년 양 집단의 우울에 부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외에 여자 청소년집단에서는 모와의 의사소통이나 친구관계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숙자, 2003; 김영란, 2004; 박경애·김은영, 1999; 손병덕, 2005; 이소희, 2005; 정용철, 2001; 조성진 외,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며 성차에 따른 해석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부의 학력이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학업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김광일 외, 1983; 정

용철,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다섯째, 우울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변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보면 모와의 의사소통은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선행연구(이근욱, 2004)와 일치되는 결과로 모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와의 의사소통은 남자청소년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직접적 영향은 없고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 영향만 미치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처음 밝혀진 것으로 일반화를 위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의 청소년 우울에 대한 총 인과효과를 비교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부와의 의사소통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모와의 의사소통이 영향력이 각각 더 크게 나타나 동성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동성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청소년이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학업문제와 친구관계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에서 두 변인의 직접적 영향 외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문제가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 선행연구와 없어 일반화를 위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업문제와 친구관계의 청소년 우울에 대한 총 인과효과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문제가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관계가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은 관계중심적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남자 청소년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Susan Nolen-Hocksma, 1994, 정연경, 2009 재인용),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과 대인관계문제로 인하여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정연경, 2009)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임상표집과 병행되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도구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서 주관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타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자를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양적 조사만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한 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수준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제 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의 추론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환경과 학업 문제, 친구관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여 성별 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 우울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학업문제, 친구관계, 학년 외에 부모의 결혼상태와 가정경제수준, 부의 학력 등의 가족의 구조적 환경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의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성별 차이를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가족의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전문계 고교 여학생, 학업문제를 겪는 청소년, 친구관계가 적은 청소년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부진 해소나 학업성취동기 촉진 프로그램, 자아성장과 건전한 교우관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청소년들 중 특히 중학생 고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차를 고려한 프로그램 내용구성이 필요한데 남자 청소년에게는 학업 문제, 부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대한 적응 등을 더 비중있게 구성하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친구관계, 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비중있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강현숙(198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광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29-43.  
 권석만(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2000.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 55-68.  
 김동식(2003). 청소년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유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강윤주(2001). 청소년기 우울성향과 관련된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2)**, 261-270.

김선아·김소야자·공성숙·김명아·서미아(1998). 남자 중학생의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사회기술,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7(2)**, 273-281.  
 김수진(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자(2003).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심리사회성숙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란(2004). 고등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김정란(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지*, **13(5)**, 683-690.  
 김정민·이정희(2008). 또래수용, 우정의 질 및 학업수행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747-1767.  
 김혜원(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정자·조맹계·최은지(1998). 한국인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상렬(2001).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애·김은영(1999). 청소년의 우울. *한국청소년연구원*.  
 박수잔(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원모·김미선·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9(3)**, 1215-1229.  
 배정숙(2006).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보건복지부(2009). *청소년 실태조사*.  
 서혜인(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병덕(2005). 일반 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 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손인영(2007).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안순옥·김영희(2005). 가족체계와 남자청소년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43(12), 165-182.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유진(2008).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종일·정문자(2009).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우울증상간의 관계:자아존중감을 통한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10), 29-37.
- 오경자·이혜련·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3), 3-19.
- 오승환(2006). 결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영(2000). 청소년 우울증 유형률. 소아과학회지, 43(2), 172-178.
- 유안진·이점숙·정현심(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43-54.
- 이경주·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지지유형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근욱(2004).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양상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사라·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소희(2005). 실업계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우울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점숙(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향숙(2003). 아버지와 관계와 종교가 청소년의 우울성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정연경(2009).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용철(2001).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의 관계.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 59-75.
- 조민영(2005).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김혜원·김민(2010). 부모-자녀의사소통 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3-217.
- 조성진·전홍진·김무진·김장규·김선옥·류인균(2001). 한국 일부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형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주소희(2002). 이혼가정 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 주소희·이경은(2005). 이혼 후 양육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행동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7(3), 123-153.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최선남·최외선(1995). 가족환경적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



- 가정학회지, **33(3)**, 31-42.
- 최외선 · 백양희 · 이미옥(1997). 부모-자녀유대관계와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7-40.
- 한유진 · 유안진(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대한가정학회지*, **32(3)**, 147-157.
- 한인영 · 홍순례 · 김혜란 · 김기환(1997).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교육과학사.
- 한창환(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강의 · 신민섭(1994).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 **33(6)**, 1378-1388.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황기섭(2000).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 ·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PA.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Aydin, B., & Oztuncu, F. (2001). Examination of adolescents negative thought, depressive mood, family environment. *Adolescence*, **36**, 77-83.
- Barrera, M. J., & Garrison-Jones, C.(1992).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ions of adolescent depressed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1-16.
- Beam, M. R., Gil-Rivas, V., Greenberger, E., &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7.
- Capaldi, D. M.(1991).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Part 1 :Familial factors and general adjustment at Grade 6. *Development and Psychology*, **3**, 277-300.
- Collins, W.,Maccoby,E., Steinberg, L., Hetherington, E., & Bornstein, M.(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American Psychologist*, **55(2)**, 218-232.
- Field, T., Diego, M., & Sanders, C.(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36(13)**, 491-498.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et al.(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Martin, G. & Waite, S.(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try Scand*, **89**, 246-254.
- Merton, B. A., Lewinsohn, D.M. & Hops, H.(1990).Sex differences in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Raja, S. N., McGee,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obert, J. F.,& Simins, R. L.(1989).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7.
- Rohde, P., Clarke, G. N., Mace, D. E., Jorgenson, J. S., & Seeley, J. R., (2004). An efficacy/effectiveness study of cognitive - behavioral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comorbid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3(6)**, 660-668.
- Wallerstein, J. S., & Kelly, J.(1980). *Surviving the breakup :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ooks.
- <http://www.maumsarang.co.kr/teenager.htm>.

접수일 : 2010년 08월 10일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0일